

건설공사 품질 관리비 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의 부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관리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현장에서 품질 관리비가 과도하게 증가되었으나, 이렇게 증가된 비용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이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적절한 품질 관리비가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형식적인 품질 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번 연구는 품질 관리비를 적절하게 도급 내역서 원가대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품질 관리비를 조사·분석하여 표준 산정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품질 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건설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적절한 품질 관리비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과다한 품질 관리비를 부담하여 왔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 내역에 현실화된 품질 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를 합하여 8.1%,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는 예방 비용 중 품질 관리 시스템 비용을 제외하여 3~5%를 품질 관리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충분한 수준의 품질 관리비가 도급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수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직접 노무비의 5%를 품질 관리비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적정 수준의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급 내역서에 최소 도급 금액의 2% 이상의 추가 금액을 시공자의 품질 관리비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절한 품질 관리비가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형식적인 품질 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